

## 신명기 역사가의 인물활용에 관한 소고: 나단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주환(연세대)

### 1. 서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왕정(monarchy)이 설립되어 사사시대가 종식되는 사건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한 사건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일반적인 역사서술이 그러하듯,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저자(역사가)는 독자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선택하여 창조적으로 기록 및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sup>1</sup> 이는 역사가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날조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서술된 역사서를 통해 객관적 역사를 복원하려는 시도보다는 역사가의 손을 통해 기록된 최종 형태의 역사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NRF-2020S1A5B5A17089283).

1 편의를 위해 소위 “신명기 역사서”의 저자를 ‘역사가’로 통일하기로 한다.

는 것이다.<sup>2</sup>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된 나단에 관한 이야기 역시 객관적 사실이기보다는 역사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역사서술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나단은 크게 세 부분에서 등장한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언약을 선언하는 사무엘하 7장이고, 두 번째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을 책망하는 사무엘하 11-12장이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계승에 직접 관여하는 열왕기상 1장이다. 각 단락에서 나단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sup>3</sup> 나단이 등장하는 세 장면 가운데, 사무엘하 7장과 열왕기상 1장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선언된 영원한 왕조(dynasty)에 관한 약속이 솔로몬의 계승으로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다윗에게 선언된 언약과 솔로몬의 계승이라는 구도 속에서 나단이 다윗 왕조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윗 언약과 솔로몬의 계승이라는 사건이 역사서 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왕정설립에서 왕국의 멸망까지 이르는 거시적인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서 내의 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 단락 등이 한 번에 기록된 것으

---

2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소위 “신명기 역사서”로 불리는 것 역시 객관적인 역사보다는 역사가의 역사관을 토대로 서술된 것임을 전제로 한다. Martin No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981).

3 나단과 관련된 자료의 문제에 대한 짧은 소개는 다음을 참조하라. Keith Bodner, “Nathan: Prophet, Politician and Novelis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6, (1, 2001), 43-44.

4 레이토는 사무엘하 7장과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된 나단에 관한 이야기는 별개의 단락처럼 보이지만, 왕조설립 및 솔로몬의 계승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무엘하 7장 12-13절에 언급된 다윗의 씨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계승 및 이후 그의 건축활동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ntti Lattu, “Second Samuel 7 and Ancient Near Eastern Royal Ideology”,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9 (2, 1997), 244-269.

로 볼 수 없기에 소위 “신명기 역사서”의 기록시기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논의 속에는 나단 이야기 역시 포함되어 있지만, 나단이 등장하는 주요 단락인 다윗 언약의 선언과 솔로몬의 계승이라는 사건이 각기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sup>5</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종 형태의 역사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 속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왕정의 설립과 왕조의 설립, 왕정과 왕조의 멸망이라는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이다.<sup>6</sup>

솔로몬의 계승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왕조 설립을 나타내고 있기에 중요한 전환점인 것은 분명하다.<sup>7</sup> 또한 야웨의 이름으로 선언된 다윗 언약이 솔로몬의 계승으로 일부 성취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전달자 역할을 한 나단 역시 두드러진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역사서에 나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기록된 것과, 역사가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려고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sup>8</sup> 다윗 언약이라는 특수성과 그것의 성취라는 결과에 주목하게 되면, 과정을 간과하

5 세르기는 다윗 언약에 최소한 세 단계의 문학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왕조의 합법성, 성전 건축의 정당성, 페르시아 시대 이후 왕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Omer Sergi, “The Composition of Nathan’s Oracle to David (2 Samuel 7:1-17) as a Reflection of Royal Judahite Ideolog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9 (2, 2010), 261-279.

6 Iain W. Provan, V. Philips Long, and Tremper Longman,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240.

7 본고에서는 ‘왕정’과 ‘왕조’의 개념을 분리하여 사용하는데, 왕정은 왕을 중심으로 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면, 왕조는 세습되는 왕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절명했으므로 스스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다윗은 솔로몬이 계승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볼 때, 왕정은 사울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솔로몬의 계승에 대한 나단의 역할은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데, 이 평가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니의 주장과 같이 역사가가 다윗 가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남겨 둔 것이라면, 우발적이기 보다는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Marvin A. Sweeney, “The Critique of Solomon in the Josianic Ed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BL* 114 (1995), 610.

게 되고 과정이 간과되면 역사가의 의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역사서 내에 기록된 나단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문 내적 분석방식(Intra-Textual Method)'을 취하되, 본문 중에서 다윗 언약 선언과 솔로몬의 계승에 묘사된 나단에 관한 기록에 주목하여 역사가가 나단을 어떻게 평가하려고 했는지를 분석한다.<sup>9</sup> 또한 역사서 내에 기록된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가가 나단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를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2. 말하는 자로서 나단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나단이 등장하는 장면은 크게 세 곳이다. 첫 번째 장면은 사무엘하 7장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었을 때,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 야웨로부터 임한 소위 '다윗 언약'의 내용을 선언한 사건이다. 두 번째 장면은 나단이 밋세바를 범한 다윗을 찾아가 비유를 통해 그를 책망한 장면을 기록한 사무엘하 12장이다. 세 번째 장면은 열왕기상 1장으로,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라 선언한 후에 나단이 밋세바를 찾아가 밋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이다. 세 장면에서 나단은 총 21회 언급되는데,<sup>10</sup>

---

9 본문 내적 분석 방식은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러티브 단락 내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는 나단이 등장하는 내러티브 단락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가는 각 단락에서 나단에 대한 일관성보다는 그의 다양한 측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의미생산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상호비교하며 분석할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에서 말하는 본문 내적 분석 방식은 각 단락에 기록된 나단의 상이한 측면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10 나단이 언급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삼하 7:2, 삼하 7:3, 삼하 7:4, 삼하 7:17, 삼

각 구절에서 나단은 ‘예언자(나비, נָבִי, 혹은 선지자)’라는 직함이 함께 언급되기도 하고, 단지 나단이라는 이름만 언급되기도 한다.<sup>11</sup> 나단이 등장하는 각 장면에서 나단을 예언자로 언급하는 빈도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한번, 사무엘하 12장에서 한번, 나머지 아홉 번은 모두 열왕기상 1장에서 언급된다.

역사가가 나단의 이름을 직함과 함께 언급하는지 여부와 그 빈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역사가와 독자에게 나단은 이미 예언자로 인식되어 있기에, 암묵적 동의 속에 나단의 이름만으로도 그가 예언자임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단락에서 직함의 유무와 그 언급의 빈도가 나단이 보인 언행에 대한 역사가의 가치판단과 닿아 있다면, 그 자체로 나단에 대한 구별된 뉘앙스를 가질 수 있고 역사가의 의도적 암시로도 해석 가능하다. 모든 독자는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의 전체와 인식을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지 역사서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2</sup> 본고에서 나단을 단지 예언자로 규정하지 않고, ‘말하는 자’로 언급하는 이유는 나단이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 의미심장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단서는 그가 단지 예언자로만 활동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

하 12:1, 삼하 12:5, 삼하 12:7, 삼하 12:13, 삼하 12:15, 삼하 12:25, 왕상 1:8, 왕상 1:10, 왕상 1:11, 왕상 1:22, 왕상 1:23, 왕상 1:24, 왕상 1:32, 왕상 1:34, 왕상 1:38, 왕상 1:44, 왕상 1:45.

- 11 나단을 선지자라고 언급하는 구절은 열한 구절, 이름만 언급하는 구절은 열 구절이다.
- 12 윤동영은 나단이 언급되는 각 단락에서 나단이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DongYoung Yoon, “The Role of Prophets Gad and Nathan in the Davidic Court”,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9집 (2018년 7월), 5-19; Dong-Young Yoon, “Gad and Nathan: The Portrayal of Socio-Religious Roles and Functions of David’s ‘Prophet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Prophet-King Relationship” (Ann Arbor, Mich.: UMI Dissertation Services, Drew University, 2011).

나단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하 7장에서 그는 다윗의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나단에게 말했다(7:2). 또한 나단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도록 권면할 수 있는 존재였다(7:3). 보드너(Keith Bodner)의 주장과 같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나단에게 표명한 것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신적 권위 부여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이 장면에서 나단은 다윗이 거침없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sup>13</sup> 더욱이 두 사람 사이에 공간적,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 나단이 ‘예언자(나비, נָבִיא)’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7:2)과 더불어, 야웨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고(7:4-16), 야웨에게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선언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7:17).<sup>14</sup>

나단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인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책망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나단은 전형적인 예언자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칼리미(Isaac Kalimi)는 사무엘하 10-12장을 하나의 통일성 있는 문학 단락으로 설정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실패 후 재기하게 된 것을 묘사한다고 주장한다.<sup>15</sup> 물론 사울의 실패와

13 Bodner, “Nathan”, 44.

14 학자들은 소위 “다윗 언약”의 내용이나 문학적 기교 등을 분석하여 나단이 다윗에게 선언한 것이 단지 언약이 아닌, 예언의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 가운데 반더후프트(David S. Vanderhooff)는 나단이 선언한 다윗 언약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다윗에게는 단순한 언약이 아닌, 예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윗 언약은 다윗의 시대에 성취된 내용(8-11절)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12-16절)로 양분할 수 있다. 물론 다윗 언약이 선언되는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이 예언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David S. Vanderhooff, “Dwelling Beneath the Sacred Place: Proposal for Reading 2 Samuel 7:1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8 (4, 1999), 633; Bodner, “Nathan”, 46.

15 Isaac Kalimi, “Reexamining 2 Samuel 10-12: Redaction History versus Compositional

다윗의 재기 사이에는 예언에 대한 반응의 여부가 놓여 있다. 칼리미의 주장대로 다윗이 재기했는지 여부는 이후 다윗에 대한 역사가의 묘사를 통해 논증되어야 하지만, 다윗이 밋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과 나단이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야웨는 밋세바를 범하여 이미 아들을 낳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책망하게 했다(12:1). 이를 통해 역사가는 나단이 다윗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그를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한 예언자임을 드러낸다.<sup>16</sup>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나단의 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1-6절에 기록된 비유고, 다른 하나는 7-12절에 기록된 책망의 내용이다. 학자들은 나단의 비유와 책망 사이에 일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얀센(David Janzen)은 나단이 비유를 통해 책망한 이유가 다윗이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 몬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밋세바를 취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17</sup> 쉬퍼(Jeremy Schipper) 역시 비유와 책망 사이의 불일치성에 주목하여,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sup>18</sup>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다윗에 대한 나단의 비판이 비유로 시작하여 직접적인 책망으로 끝난다는 것, 다윗이 회개한 것이 야웨로부터 임한 말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제이콥스(Jonathan Jacobs)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나단의 예언행위는 야웨의 이름으로 선언된 책망으로 끝나지 않는다(삼하 12:15). 예언자로서 나단의

---

Unity”,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8 (1, 2016), 24-46.

16 Yosi Leshem, “‘And David Was Sitting in Jerusalem’: The Accounts in Samuel and Chronicle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87 (2016), 55-56.

17 David Janzen, “The Condemnation of David’s ‘taking’ in 2 Samuel 12:1-1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 2012), 209-220.

18 Jeremy Schipper, “Did David Overinterpret Nathan’s Parable in 2 Samuel 12:1-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6 (2, 2007), 387.

행위는 다윗과 밋세바 사이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여디디아로 정해주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사무엘하 12장 25절에는 야웨가 솔로몬을 사랑했으며, 나단을 보내어 이름을 여디디아로 정해지게 했다고 기록한다. 이는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정해주는 것까지 나단이 예언자로서 기능했다는 것을 나타낸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 1절은 야웨가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고 기록하면서도 나단이 말한 비유 그 자체로 야웨로부터 기인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자들은 나단의 비유만큼은 야웨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추론하지만<sup>20</sup>, 나단은 비유 후에 다윗에 대한 야웨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אֱלֹהֵי יִשְׂרָאֵל, כֹּה־אָמַר יְהוָה)”이라는 예언 공식을 인용한다(7절). 또한 나단의 선언 후에 예언의 대상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으며, 자신과 밋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죽음이 야웨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여긴 것을 볼 때, 이 장면에서 나단의 말과 역할이 전형적인 예언자로 그려지고 있음이 드러난다.<sup>21</sup> 나단이 등장하여 예언자로 역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무엘하 7장과 12장은 나단을 예언자로 언급하는데, 7장 2절과

19 제이콥스는 사무엘하 11-12장에 기록된 밋세바 사건과 나단의 책망 이야기가 결국 다윗과 밋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짓게 되었다는 점, 또 이 후에 그가 솔로몬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속죄 과정에서 마침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솔로몬의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탄생, 야웨가 그를 사랑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가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Jonathan Jacobs, “The Death of David’s Son by Bathsheba (II Sam 12: 13-25): A Narrative in Context”, *Vetus Testamentum* 63 (4, 2013), 575-576.

20 Jacqueline Grey, “A Prophetic Call to Repentance: David, Bathsheba and a Royal Abuse of Power”, *Pneuma* 41 (1, 2019), 20-21; Bodner, “Nathan”, 48.

21 Grey, “A Prophetic Call to Repentance”, 22; Herbert Rand, “David and Ahab: A Study of Crime and Punishment”, *Jewish Bible Quarterly* 24 (2, 1996), 94; David A. Bosworth, “Faith and Resilience: King David’s Reaction to the Death of Bathsheba’s Firstborn”,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3 (4, 2011), 691-707.

12장 25절에서 각각 나단을 예언자로 언급함으로써, 최소한 사무엘하에서 나단의 역할을 예언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듯 보인다.<sup>22</sup>

사무엘하 7장과 12장에서 나단을 예언자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단이 등장하는 세 번째 장면인 열왕기상 1장에서 그 양상이 급격히 변화된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노년기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이미 아도니야가 자신을 왕이라 선언한 일을 기록한다(왕상 1:5). 역사가는 아도니야의 행위가 정상적인 계승 준비인지, 반역인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아도니야가 행한 일이 군사가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주요 권력자들의 동의를 얻은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드러낸다.<sup>23</sup> 열왕기상 1장 8절과 10절에 의하면, 아도니야의 행위에 자신의 의지로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8절), 아도니야가 청하지 않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후자에 속한 인물은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 솔로몬이었다(10절). 나단은 밋세바에게 아도니야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일이 밋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임을 말한다(11-12절). 이에 따라 나단은 밋세바에게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할 “계책(에짜, תַּעֲצָה)”을 말한다(12-14절). 나단이 밋세바에게 말한 계책은 밋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다윗이 약속했다는 내용을 다윗에게 알리는 것으로, 밋세바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을 때 나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확증하겠다는 내용이었다(13-14절).

---

22 Victor H. Matthews, *Hebrew Prophets and Their Social World: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48-51.

23 손중희는 아도니야의 선언을 반란이 아니라고 해석한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면서도 압살롬의 반란과 비교하여 반란이라고 설명한다. 손중희, “**אֲדֹנִיָּא** - 다윗 왕위 계승 순위의 뒤틀림”, 『구약논단』 22권 2호 (2016년 6월), 112-113.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1장에는 나단이 밋세바에게 온 것과 그녀에게 말한 계책이 야웨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어떠한 암시도 없다는 것이다.<sup>24</sup> 열왕기상 1장은 나단이 밋세바에게 말한 계책이 실행되었다고 기록하는데(15-21절), 밋세바가 다윗에게 말하는 동안 나단이 등장하여 다윗에게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라 선언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22-27절). 물론 이 장면에서도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과 말하게 된 것이 야웨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어떠한 암시도 없다. 따라서 운동영은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된 나단의 모습을 “궁정의 아침꾼(*court courtier*)”으로 표현하는데, 나단이 밋세바에게 접근하여 말한 계책은 다윗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안된 시나리오라고 설명한다. 운동영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나단은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밋세바를 이용하고 있다.<sup>25</sup> 앞서 나단을 예언자라 언급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1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sup>26</sup> 나단이 직함 없이 단지 이름만으로 언급될 때와는 사뭇 달리, 예언자라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면에서 그의 말이 야웨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암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24 벨슨은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예언자에 대한 지침은 예언에 대한 야웨의 우선성과 활동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신명기가 역사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면, 밋세바에게 찾아온 나단의 행위와 계책 속에 야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암시가 될 수 있다. Nelson Richard D., *Deuteronomy: A Commentary*,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236.

25 Yoon, “Gad and Nathan: The Portrayal of Socio-Religious Roles and Functions of David’s ‘Prophet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Prophet-King Relationship”, 183-187.

26 다음을 참조하라. Yoon, “The Role of Prophets Gad and Nathan in the Davidic Court”, 11-14.

### 3. 나단이 말한 계책

나단이 등장하는 세 단락 중 나단을 예언자로 언급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곳이 열왕기상 1장이다. 그러나 열왕기상 1장에서는 나단의 말과 행동이 야웨의 명령에 근거했다는 암시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밋세바에게 말한 계책의 성격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나단에 대한 역사가의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나단은 자신이 말할 계책이 밋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내용이라고 언급한다(12절). 또한 나단은 밋세바에게 구체적인 언행지침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가서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야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라고 질문하라는 것이다(13절).<sup>27</sup> 또한 나단은 밋세바가 다윗에게 말하는 동안 자신이 들어가서 그 말을 확증하겠다고 했고(14절), 밋세바가 다윗에게 한 말은 나단의 지침과 대동소이하다(17-18절). 밋세바가 다윗에게 말하는 동안 나단은 다윗에게 아도니야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다윗 자신인지 질문하며, 아도니야가 사독과 브나야, 솔로몬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왕으로 선언했다는 사실을 알렸다(24-27절). 세 사람의 대화 후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했고(30절), 사독과 나단, 브나야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었다(32-39절). 나단의 계책과 그것의 실행 중에 강조되는 것은 다윗이 밋세바에게

---

27 레이토(Antti Laato)는 고대근동의 왕실 이념과 사무엘상 7장의 다윗 언약을 비교하며,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기록된 다윗의 씨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다윗 언약은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의 지위와 성전건축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강화된 내용이며,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된 아도니야와 솔로몬 사이의 경쟁, 그로 인한 솔로몬의 계승 역시 솔로몬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다. Laato, “Second Samuel 7 and Ancient Near Eastern Royal Ideology.”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전에” “맹세”했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13, 17절).

나단의 계책은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롯하여 다윗의 가문에게도 중요한 일임에도, 이전에 다윗이 밋세바에게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역사서 내에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가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밋세바, 그리고 나단과 역사가는 다윗이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2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의 말은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 만약 나단의 계책대로 다윗이 전에 밋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약속했다면, 나단은 밋세바에게 ‘다윗 왕이 당신에게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리라 약속한 것을 당신은 기억하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단의 말은 밋세바가 잊고 있던 일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아닌, 단지 그렇게 말하라는 지침일 뿐이다.

나단의 계책 속에 언급된 다윗의 약속이 역사서의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 나단의 등장과 계책 모두 야웨로부터 기인했다는 암시가 없다는 점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보드너는 나단이 다윗 언약을 선언했고 언약 속에서는 왕위 계승에 대한 개념이 포함돼 있으므로, 계승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보드너는 사무엘하 7장 12-13절과 12장 25절을 연관시켜, 나단이 밋세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정해 준 것이 언약 속 다윗의 씨로 귀결된다는 주장이다.<sup>29</sup> 이와는 달리 바이페르트(Helga Weippert)는 역사가가 다윗 언약과 솔로몬의 계승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려 했다면, 나단의 계책에 언급된 솔로몬 계승에 관한 약

28 Bodner, “Nathan”, 47.

29 Bodner, 49.

속이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색하다고 주장한다.<sup>30</sup> 윤희영은 나단의 역할에 주목하여 열왕기상 1장에 묘사된 나단은 예언자가 아니라 단지 조언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나단의 등장과 계책이 야웨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sup>31</sup> 알터(Robert Alter)는 역사서 내에서 나단의 정체성이 예언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가 말한 계책 역시 예언자로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2</sup>

학자들의 견해는 나단의 역할이나 계책의 진실성 여부에 국한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나단의 언행보다는 역사가의 기록이다. 만약 다윗이 밋세바에게 솔로몬의 계승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자유가 역사가에게 있다. 또한 모든 독자는 나단과 밋세바, 다윗의 모든 말을 역사가의 기록에 의존하여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나단이 말한 계책의 진실성 여부는 단지 열왕기상 1장을 통해 결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킬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는 나단과 밋세바, 다윗 사이의 대화를 충실히 기록했다. 그러나 나단이 밋세바에게 간 것과 계책을 말한 것, 또 나단이 다윗에게 간 것과 말한 것이 야웨로부터 기인했다는 어떠한 암시도 남기지 않는다. 메팅어(Tryggve N. D. Mettinger)는 나단의 계책으로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계승이 나단과 사독, 브나야와 같이 솔로몬

30 Helga Weippert, "'Histories' and 'History': Promise and Fulfillment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ical Work", Gary N. Knoppers and J. G. McConville(eds.), *Reconsidering Israel and Judah: Recent Studies o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ources fo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8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0), 57.

31 윤희영은 열왕기상 1장에 묘사된 나단은 예언자가 아닌, 조언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Yoon, "The Role of Prophets Gad and Nathan in the Davidic Court", 14.

32 알터의 주장은 나단이 등장하는 각 단락에서 나단에게 적용된 표현들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단이 등장하는 모든 단락을 단지 하나의 내러티브로 인식하여 그의 정체성과 언행에 대한 일관성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나단이라는 인물이 가진 복잡한 성격을 역사가가 다각도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이다.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124.

을 지지한 ‘솔로몬 당파(Solomon party)’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데<sup>33</sup>, 사무엘하 7장과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거나 말한 것에 대해서 야웨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역사가는 나단의 행위가 정당했다거나, 실제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켰다거나, 그것이 야웨의 의지였다는 그 어떠한 암시도 남기지 않는다. 어쩌면 나단이 말한 계책과 이후에 이뤄진 행위들이 야웨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단의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sup>34</sup>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역사가는 나단이 밋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특정한 언행을 한 것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야웨의 의지라는 것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 존재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사가에게는 나단의 언행이 야웨의 보냄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나단의 행위와 그로 인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사건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거시적인 관점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그가 어떤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렇게 형성된 다윗 왕조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서 전체의 흐름이다.

솔로몬의 지혜(왕상 3, 10장)와 그가 부요한 국가를 이룬 것(왕상 4

33 Mettinger Trygve N. D., *King and Messiah: The Civil and Sacral Legitimation of the Israelite Kings*, Coniectanea Biblica, Old Testament Series 8 (Lund: LiberLäromedel/Gleerup, 1976), 22-23.

34 역사가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일련의 사건을 묘사함에 있어, 솔로몬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으며, 솔로몬을 수동적인 존재로 숨겨두고 있다. 계승 과정에 있어 숨겨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단의 정치적인 계산 등으로부터 솔로몬이 자유할 수는 있지만, 왕위에 오른 후 보인 그의 행위는 나단의 계책과 더불어 역사의 흐름에 있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분열케 하고 종국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한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무엘하 9장으로부터 열왕기상 2장에 이르는 계승의 역사가 솔로몬 계승의 합법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다음을 참조하라. 오민수, “지혜문학적인 역사서술: 다윗의 왕위 계승사(삼하 9장-왕하 2장)”, 『구약논단』 21권 4호 (2015년 12월), 80-81.

장), 그리고 다양한 건축사업(왕상 5-9장)과 관련된 역사가의 기록 속에는 직접적인 가치평가가 유보된 듯 보인다(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며(11:1-13), 이를 통해 정치적인 대적이 등장했다고 기록된다(11:14-40). 역사가는 솔로몬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지만, 그 정책의 결과로 르호보암 때에 국가가 분열되었음을 기록한다(12장). 특히 9장 4-5절에는 야웨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웨가 명령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는데, 솔로몬이 야웨가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다고 기록하는 열왕기상 11장 1-13절은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야웨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열왕기하 25장에서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는 것은 다윗 언약의 주요 내용인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삼하 7:16)이 잠정적으로 파기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sup>35</sup>

각 단락의 기록 시기와 편집자의 역할 등에 따라 각 내용이 다른 견해를 가진 자료를 토대로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결국 현재 주어진 최종 형태의 역사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과 왕조의 설립, 또 그 한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나단의 계획이 옳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또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나단의 언행이 야웨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암시를 남기지 않은 역사가의 의도를 추론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역사가는 나단에 대한 암시를 통해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 했는가?

---

35 엔젤은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야웨가 그에게 다윗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지만,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했으므로 이 언약은 최종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행위는 왕국의 분열을 불러왔고, 분열된 왕국은 모두 멸망했으므로, 솔로몬을 왕국 분열과 멸망의 원인제공자로 보는 것이 무리한 시도만은 아니다. Hayyim Angel, "The Eternal Davidic Covenant in II Samuel Chapter 7 and Its Later Manifestations in the Bible", *Jewish Bible Quarterly* 44 (2, 2016), 83-85.

#### 4. 역사가의 나단 활용

학자들은 나단이 등장하는 단락을 비롯하여 신명기 역사서의 기록 및 형성 과정을 연구하여, 기록과 편집 등의 과정이 이루어진 시대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신학적 입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했다.<sup>36</sup> 역사서의 기록과 형성 과정을 추적한 학자들의 시도는 중요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종 형태의 역사서는 다양한 시대에 기록된 자료들이 취합되어 하나의 역사 흐름을 구성한 완성된 형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역사는 자신이 취할 수 있었던 다양한 자료들의 원래 의미를 보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재배치하고 재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되고 왕조가 설립되었으며, 그것이 멸망하는 과정을 역사의 흐름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종 형태의 역사서를 완성한 저자 그룹은 왕조의 멸망과 더불어 여전히 바빌론 시대를 전제로 하는 여호야긴의 석방과 관련된 사건(왕하 25:27-30)을 역사서의 마지막에 배치했다.<sup>37</sup>

학자들은 신명기 역사서 내의 다양한 자료 층을 구분하여 역사서의 최종 편집시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쳐왔다.<sup>38</sup> 그러나 역사서의

---

36 나단과 관련된 자료의 문제는 다음을 참조하라. Bodner, "Nathan". 소위 "신명기 역사서"의 편집층 및 주제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Frank Moore Cross,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Gary N. Knoppers and J. G. McConville(eds.), *Reconsidering Israel and Judah: Recent Studies o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ources fo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8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0), 79-94. 열왕기서의 편집사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Juha Pakkala, "Deuteronomy and 1-2 Kings in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and Former Prophets", Schmid Konrad and Raymond F. Person(eds.),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BL Annual Meeting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33-162.

37 Provan, Long, and Longman,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240.

38 역사서의 기록 및 편집시기에 관한 논의는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과 벗어나는 주제가므로 자세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기록 및 편집시기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최종 편집시기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역사서가 다루는 마지막 사건이 바빌론 시대의 일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다. 역사서는 기원전 560년경으로 보이는 여호야긴의 석방에 관한 묘사로 끝난다. 역대기가 페르시아 고레스의 등극과 귀환 정책 등을 통해 유다인에게 비취 오는 서광을 그려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대하 36:22-23). 물론 이런 기록을 통해 역사가가 바빌론 시대에 현재 형태의 역사서를 완성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만, 여전히 암울한 바빌론 시대의 사건으로 역사서를 종결 짓고 있음이 드러날 뿐이다. 이를 통해 역사가가 유다 민족과 그 국가에 대한 희망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역사가는 희망을 말하기에 앞서 암울했던 역사를 먼저 상기시키고, 그것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9</sup>

역사가는 왕정 도입으로부터 국가의 멸망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과오를 숨김 없이 묘사했다. 또한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왕의 주위에 있었던 다양한 인물들이 왕과 함께 국가의 멸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역사가가 국가 멸망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방식은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거나,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해당 인물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며, 이러한 서술에 있어 다윗 왕조의 첫 계승자였던 솔로몬 및 주변 인물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sup>40</sup> 역사가는 이스라엘 역사 중 첫 왕조를 설

---

Raymond F. Person, *The Deuteronomic History and the Book of Chronicles: Scribal Works in an Oral World*,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cient Israel and Its Literature 6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Thomas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T&T Clark, 2005).

39 학자들의 지적처럼 역사가는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기록했다. 따라서 나단은 예언자였으므로, 그에 대한 묘사는 역사서를 종교적 관점에서 서술한 역사가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Provan, Long, and Longman,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241.

40 J. Daniel Hays, "Has the Narrator Come to Praise Solomon or to Bury Him?: Narrative

립한 다윗과 솔로몬의 등극에 관해 묘사하되,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선언했고 솔로몬의 등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시켰다.<sup>41</sup> 중요한 것은 나단이 야웨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선언하고 과오를 책망했다고 해서 그가 역사가에게 항상 긍정적인 인물로 기억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보드너의 지적과 같이 나단은 솔로몬의 계승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조연자일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을 평가하는 역사가에게는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42</sup>

열왕기서는 스마야와 아히야,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의 선언이 성취가 되었음을 기록하면서도, 소위 ‘거짓 예언자’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도 기록한다.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사이에서 거짓으로 인해 벌어진 소동을 기록하거나, 자신에게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는 미가야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간 아합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한다(왕상 22장). 물론 열왕기서가 전기예언서로 불리기는 하지만 역사서의 성격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언 논쟁 등에 관한 기록은 많이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 예언자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역사서 내에서 예언자가 주요한 역사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예언자가 야웨의 의지를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단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스위니는 역사가가 솔로몬에 대한 의심을 자아낼 수 있는 내용을 역사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나단의 계책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한 것은 부정적

---

Subtlety in 1 Kings 1-11”, *JSOT* 28 (2, 2003), 159-160.

41 솔로몬 등극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에서 발견되는 편집의 흔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urke O. Long, *1 Kings: With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terature*, FOTL 9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 1984), 33-34.

42 Bodner, “Nathan”, 54.

인 평가를 위한 의도라고 주장한다.<sup>43</sup> 스위니와 메팅어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계승이 거짓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사가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서술한 것은 솔로몬 계승의 합법성을 부인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sup>44</sup> 학자들의 견해가 옳다면, 이 과정에 가장 깊이 개입한 나단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 역시 긍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역사가가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나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역사가는 나단이 예언자로 기능한 내용을 서술하면서도 솔로몬의 계승 과정 속에서는 예언자로 기능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운동영과 프리츠(Volkmar Fritz)는 열왕기상 1장에 묘사된 나단이 단순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고 주장한다. 운동영은 나단이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책사(typical political schemer)”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프리츠는 나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밧세바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왈쉬(Jerome T. Walsh)는 나단이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아도니아를 향한 증오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거짓임을 알면서도 다윗 앞에서 일을 “꾸며냈다”고 설명한다.<sup>46</sup> 중요한 것은 그가 밧

43 Sweeney, “The Critique of Solomon in the Josianic Ed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617.

44 Steven L. McKenzie, *King David: A Bi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78; Richard D. Nelson, *The Historical Book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133-140. 물론 나단의 계책이 거짓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Baruch Halpern, *David's Secret Demons: Messiah, Murderer, Traitor, King* (Grand Rapids, Mich: W. B. Eerdmans, 2001), 396; Matthew Newkirk, “Reconsidering the Role of Deception in Solomon’s Deception”, *JETS* 57 (4, 2014), 703-713.

45 Yoon, “The Role of Prophets Gad and Nathan in the Davidic Court”, 14; Volkmar Fritz, *1 & 2 Kings*, 1st English language ed. (Minneapolis, Minn: Fortress, 2003), 18-19.

46 Jerome T. Walsh, *Style and Structure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1), 61.

세바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가 예언자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주어진 역사서는 바르지 못한 통치를 한 솔로몬이 등극하는데 나단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서가 국가의 분열과 멸망을 다루고 있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치적 욕망에 따라 활동한 나단이 국가의 대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터스(John Van Seters)와 맥카터(P. Kyle McCarter)는 나단의 계책과 솔로몬의 등극, 그의 실정 등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sup>47</sup>, 왕위 계승 후 솔로몬의 행적이 보이는 부정적인 측면은 간과할 수 없고, 역사가는 솔로몬의 계승에 나단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과 이후 솔로몬의 실정 모두를 알고 있기에 역사서의 거시적 흐름 속에 일련의 사건을 배치했다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즉 예언자로서 나단의 진실성 여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에 근거하여 평가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그가 바꿔 놓은 역사의 흐름과 그 결과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8</sup>

중요한 것은 역사가가 나단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문제다. 역사가는 나단이 정치적 욕망에 따라 행동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단일한 목적만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47 John Van Seters, *The Biblical Saga of King Davi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9), 322; P. Kyle McCarter, "Plots, True or False": The Succession Narrative as Court Apologetic", *Interpretation* 35 (1981), 361.

48 마이어는 왕위계승 과정 속에 드러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는 왕위계승을 보증할 수 있는 예언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 아도니아를 따른 인물 중에는 예언자가 없었지만, 솔로몬의 경우 예언자 나단이 그를 지지했기에, 솔로몬이 계승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Samuel A. Meier, *Themes and Transformations in Old Testament Prophecy*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9), 132-133. 이러한 관점은 나단이 말과 행동을 통해 야웨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언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왕위를 보증할 수 있는 자라는 인식으로 이어지는데, 역사서의 흐름 속에서 예언자가 누구의 편에 서는지는 왕위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단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신의 시대에 유의미한 통찰을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가에게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다윗 언약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멸망이라는 현실을 수용하되, 그것을 극복하여 만들어 갈 미래에 달려 있다.<sup>49</sup> 역사가와 그의 독자가 처한 현실을 특정 시대로 국한할 수 없다. 역사서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듯, 포로기일 수도 있고, 포로 후기 회복의 시대를 전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한 역사가의 통찰은 시대에 갇힌 것이 아니다. 학자들의 주장대로 역사가가 종교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라면<sup>50</sup>,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한 종교적인 관점의 통찰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신실한 예언자로 활동한 나단에 대해 기록하되, 그가 야웨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잣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발생한 비극적인 일의 연속을 고스란히 기록했다. 나단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명암을 모두 기록했다. 역사는 나단을 비롯해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그들의 명암을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현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려고 했을 것이다.<sup>51</sup> 이는 나단이 선언한 다윗 언약과 예언의 순기능을 수용하되, 예언자의 변질이 불러올 비극을 경계하는 이중적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49 역사서의 독자가 처한 상황은 역사서에 기록된 나단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산출이 가능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Gerrie Snyman, "Identity, Power, and the World of Ancient (Biblical) Text Production", Louis C. Jonker(ed.), *Historiography and Identity (Re) Formulation in Second Temple Historiographical Literature* (New York: T&T Clark, 2010), 133.

50 Provan, Long, and Longman,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241.

51 다음을 참조하라. 김주환, "왕위 계승 문제와 해석 가능성에 관한 고찰: 솔로몬 계승 이야기(왕상 1장)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0호 (2019년 6월), 71-98.

## 5. 결론

신명기 역사서에는 나단이 예언자로서 다윗에게 언약을 선언하거나, 다윗의 과오에 대해 책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가는 야웨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 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단에 관해서 기록했다. 물론 예언자라는 나단에 대한 수식은 그가 야웨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로 기능할 때보다는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 놓되, 야웨의 명령이라는 암시가 없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역사가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중에 언급된 계책, 즉 다윗이 전에 솔로몬이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을 역사서의 다른 부분에는 기록하지 않고 단지 나단을 통해 말하게 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이전에 약속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나단의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물론 솔로몬의 계승에 대한 다윗의 약속이 있었으나,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자유가 역사가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가가 나단을 신실한 예언자이자, 야웨의 의지에 따라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 놓은 존재로 묘사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 약속의 내용을 역사서의 다른 부분에 기록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가는 그 약속을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는다.

역사가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 독자는 크게 세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역사가가 왕위 계승에 대한 다윗의 약속을 생략했다. 둘째, 왕위 계승에 대한 다윗의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sup>52</sup> 셋째, 역

---

52 첫째 가능성은 역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서술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의 문제에 관한 것이며, 둘째 가능성은 본고에서 소개한 나단의 계책이 거짓이라는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사가는 왕위 계승에 관한 약속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나단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의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세 가능성 모두를 무시할 수 없지만, 왕위 계승 약속이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단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가는 나단이라는 인물에 관해 다양한 자료와 기억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나단을 신실할 예언자의 모습을 갖춘 인물임과 동시에 정치적인 계산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올렸으나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 왕조의 실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역사가의 기록은 나단에 대한 이중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함으로써, 역사가가 살았던 그 자신의 현재를 위한 역사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구약성서의 일부 내용에 근거했을 때, 포로기를 비롯하여 포로 후기에 여전히 예언자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나단에 대한 기록은 신실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분별을 요구한다.<sup>53</sup> 특히 암울했던 바빌론 시대를 지나, 국가나 민족의 회복을 소망했을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왕조를 선언한 나단의 이중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계승해야 하고, 무엇을 극복해야 할지 분별하며 선택하도록 요청했을 것이다.

---

53 신명기 역사서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이 기원전 560년경의 일임에는 분명하며,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등에 포로기에 활동한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볼 때, 포로기에 첨예했던 예언논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고에서 포로 후기를 언급하는 것은 신명기 역사서의 기록이 완료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서는 1차 독자뿐 아니라, 이후의 무수한 독자들에게 읽혔을 것이므로, 역사서를 통해 자신의 시대에 유효한 의미를 생산하려 했던 다양한 독자들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서이다.

## 참고문헌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Angel, Hayyim, "The Eternal Davidic Covenant in II Samuel Chapter 7 and Its Later Manifestations in the Bible", *Jewish Bible Quarterly* 44.2 (2016), 83-90.
- Bodner, Keith, "Nathan: Prophet, Politician and Novelis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6.1 (2001), 43-54.
- Bosworth, David A., "Faith and Resilience: King David's Reaction to the Death of Bathsheba's Firstborn",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3.4 (2011), 691-707.
- Cross, Frank Moore,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Gary N. Knoppers and J. G. McConville(eds.), *Reconsidering Israel and Judah: Recent Studies o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ources fo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8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0), 79-94.
- Fritz, Volkmar, *1 & 2 Kings*, 1st English language ed. (Minneapolis, Minn: Fortress, 2003).
- Grey, Jacqueline, "A Prophetic Call to Repentance: David, Bathsheba and a Royal Abuse of Power", *Pneuma* 41.1 (2019), 9-25.
- Halpern, Baruch, *David's Secret Demons: Messiah, Murderer, Traitor, King* (Grand Rapids, Mich: W. B. Eerdmans, 2001).
- Hays, J. Daniel, "Has the Narrator Come to Praise Solomon or to Bury Him?: Narrative Subtlety in 1 Kings 1-11", *JSOT* 28.2 (2003), 149-174.
- Jacobs, Jonathan, "The Death of David's Son by Bathsheba (II Sam 12:13-25): A Narrative in Context", *Vetus Testamentum* 63.4 (2013), 566-576.
- Janzen, David, "The Condemnation of David's 'taking' in 2 Samuel 12:1-1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2 (2012), 209-220.
- Kalimi, Isaac, "Reexamining 2 Samuel 10-12: Redaction History versus Compositional Unity",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8.1 (2016), 24-46.
- Latto, Antti, "Second Samuel 7 and Ancient Near Eastern Royal Ideology",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9.2 (1997), 244-269.
- Leshem, Yosi, "'And David Was Sitting in Jerusalem': The Accounts in Samuel and Chronicle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87 (2016), 49-60.
- Long, Burke O., *1 Kings: With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terature*, FOTL 9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 1984).
- Matthews, Victor H., *Hebrew Prophets and Their Social World: An Introduction* (Grand

- Rapids: Baker Academic, 2012).
- McCarter, P. Kyle, “Plots, True or False’: The Succession Narrative as Court Apologetic”, *Interpretation* 35 (1981), 355-367.
- McKenzie, Steven L., *King David: A Bi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Meier, Samuel A., *Themes and Transformations in Old Testament Prophecy*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9).
- Nelson, Richard D., *The Historical Book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Newkirk, Matthew, “Reconsidering the Role of Deception in Solomon’s Deception”, *JETS* 57.4 (2014), 703-713.
- Noth, Mart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981).
- Pakkala, Juha, “Deuteronomy and 1-2 Kings in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and Former Prophets,” Schmid Konrad and Raymond F. Person (eds.),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BL Annual Meeting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33-162.
- Person, Raymond F., *The Deuteronomic History and the Book of Chronicles: Scribal Works in an Oral World*,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cient Israel and Its Literature 6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 Provan, Iain W., V. Philips Long, and Tremper Longman,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Rand, Herbert, “David and Ahab: A Study of Crime and Punishment”, *Jewish Bible Quarterly* 24.2 (1996), 90-97.
- Richard D. Nelson., *Deuteronomy: A Commentary*,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Römer, Thomas,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T&T Clark, 2005).
- Schipper, Jeremy, “Did David Overinterpret Nathan’s Parable in 2 Samuel 12:1-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6.2 (2007), 383-391.
- Sergi, Omer, “The Composition of Nathan’s Oracle to David (2 Samuel 7:1-17) as a Reflection of Royal Judahite Ideolog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9.2 (2010), 261-279.
- Seters, John Van, *The Biblical Saga of King Davi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9).

- Snyman, Gerrie, “Identity, Power, and the World of Ancient (Biblical) Text Production”, Louis C. Jonker(ed.), *Historiography and Identity (Re)Formulation in Second Temple Historiographical Literature* (New York: T&T Clark, 2010), 133-147.
- Sweeney, Marvin A., “The Critique of Solomon in the Josianic Ed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BL* 114 (1995), 607-622.
- Tryggve N. D. Mettinger, *King and Messiah: The Civil and Sacral Legitimation of the Israelite Kings*, Coniectanea Biblica, Old Testament Series 8 (Lund: LiberLäromedel/Gleerup, 1976).
- Vanderhooft, David S., “Dwelling Beneath the Sacred Place: Proposal for Reading 2 Samuel 7:1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8.4 (1999), 625-633.
- Walsh, Jerome T., *Style and Structure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1).
- Weippert, Helga, “‘Histories’ and ‘History’: Promise and Fulfillment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ical Work”, Gary N. Knoppers and J. G. McConville(eds.), *Reconsidering Israel and Judah: Recent Studies o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ources fo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8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0), 47-61.
- Yoon, Dong-Young, “Gad and Nathan: The Portrayal of Socio-Religious Roles and Functions of David’s ‘Prophet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Prophet-King Relationship” (Drew University, 2011).
- \_\_\_\_\_, “The Role of Prophets Gad and Nathan in the Davidic Court”,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109집 (2018년 7월), 5-19.
- 김주환, “왕위 계승 문제와 해석 가능성에 관한 고찰: 솔로몬 계승 이야기(왕상 1장)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0호 (2019년 6월), 71-98.
- 손종희, “**וְיָשָׁב וְיָנֵס**” - 다윗 왕위 계승 순위의 뒤틀림, 「구약논단」 22권 2호 (2016년 6월), 98-131.
- 오민수, “지혜문학적인 역사서술: 다윗의 왕위계승사(삼하 9장-왕하 2장)”, 「구약논단」 21권 4호 (2015년 12월), 74-104.

#### 검색어

나단, 나단의 계책, 솔로몬의 등극, 예언자, 신명기 역사서

[ ABSTRACT ]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haracters by a Deuteronomistic Historian: Focusing on the Story of Nathan

Ju-Hwan Kim  
Yonsei University

Nathan's deeds recorded in the books of Samuel and Kings are twofold. On the one hand, in the scenes where he declares a Davidic covenant (2 Sam 7) or rebukes David in relation to Bathsheba (2 Sam 12), Nathan is portrayed as a prophet, strengthening or checking the royal authority.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Solomon ascending the throne after David, Nathan is mentioned most often as a prophet, but there is no hint that his words and actions originated from Yahweh (1 Kings 1). The historian does not directly evaluate Nathan's words and actions, but from a macro perspective, he recorded the fact that the history after Solomon's reign led to the division and destruction of the kingdom. By recording all the light and darkness of the character Nathan, the historian did not simply state the historical fact, but tried to express his intention through the historiography. As recorded in historiography, in the gloomy reality of the fall of the nation and the rule of Babylon, the historian tried to face up to the people and events of the past that made reality, and to tell what to discard and what to choose for the perpetuity of the covenant.

www.kci.go.kr

key words

Nathan, Nathan's advice, Succession of Solomon, Prophet,  
Deuteronomic History

투고일: 2023년 07월 13일

심사일: 2023년 07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8월 09일

[www.kci.go.kr](http://www.kci.go.kr)